농작업 대행 작업단 본격 '가동'

임실군, 보리 ·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등… 소득 늘고 생산비는 줄어

민선6기 공약사업, 작년부터 농작업

임실군의 농작업 대행 사업이 농가들의 높은 호응 속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구성해 작년부터 보리수확과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작업 등 농작업을 대행,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위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리전용 수확기와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작업기 등 8종의 16대에 달하는 농기계를 구입했다.

또한 이들 농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까지 선발해, 농작업 대행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군이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운영하게 된 것은 농가들이 보리수확 등의 문제로 겪었던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다.

실제 지역 농가들은 보리를 재배하고 싶어도 수확하는 것이 문제가 돼 재배 자체를 포기하기 일쑤였다.

설사 보리를 재배하더라도 기존의 일반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면 손실율이 30%를 넘다보니 재배를 확대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랐다.

하지만 임실군이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운영하면서 재배여건은 확 달라졌다.

농작업 대행 작업단의 보리전용 수확기(보통형 콤바인)로 수확을 하게 되면 쓰러진 보리는 물론이고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이 힘든 보리도 다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해 처음으로 보리전용 수확기로 총 40농가에 36ha의 보리 수확작업을 실시한 결과 수확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돼 농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52농가에 63ha에 보리 재배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농작업 대행 작업단은 8월부터 조사료용 옥수수에 대한 수확을 대행해 줄 계획이다. 올해에는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들의 옥수수 수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지난 해 44ha에서 80ha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의 경우 지역별 대표를 선정해 파종에서부터 체계적인 준비 중이며, 옥수수 파종 농가들을 대상으로 재배기술교육 및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청웅면에 거주하는 박종철(66)씨는 "올해에도 군에서 보리 수확을 도와주고 수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았다"며 "수확에 문제가 없으니 재배 면적을 내년에도 면적을 늘려 재배해야겠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농작업 대행 작업단은 보리와 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수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농작업 대행사업을 더욱 더 적극 추진해서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향상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 체류형 관광 이끈다

향가 오토캠핑장 설치 이어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 섬진강 뷰라인 연결 등 진행

순창군이 본격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개발사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체류형 관광시스템 정착과 500만 관광객 유치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순창군이 본격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개발사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체류형 관광시스템 정착과 500만 관광객 유치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동계 장군목을 중심으로 적성, 유등, 풍산 향가 까지 이어지는 섬진강 주변에 자연과 문화적 자원을 강천산에 이은 군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4개 면에 걸쳐 이어지는 섬진강은 확장성이 매우 큰 관광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지난 2015년 150억여원을 투자해 풍산 향가마을에 설치한 향가 오토캠핑장과 향가목교 LED 야간 조명시설, 향가터널 이색쉼터 등 주변 자원개발사업은 지난 한해 3만 7천여명의 캠핑객을 유치하며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올해는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과 휴일 방갈로와 데크, 글램핑 예약이 6월말까지 완료된 상태다.

어린이 놀이터 등 가족단위 캠핑족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캠핑과 관광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캠핑시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용궐산 치유의 숲 사업도 올해부터 봄꽃이 만개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 봄에는 철쭉을 중심으로 봄꽃이 피면서 차츰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면서 "특히 마실캠핑장과 장군목 등 섬진강 생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용궐산 치유의 숲 조성과 미르숲, 자생식물원 조성에 4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또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총 72억 여원을 투자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적성면 섬진강변에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섬진강 개발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섬진강 뷰라인연결사업은 적성면 채계산에 국내최대 270m 구름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62억여원을 투자하며 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 보러와요"

남원 운봉읍 비전 · 전촌마을에서 펼쳐

제3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가 16일부터 18일 까지 3일 동안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에서 개최된다.

동편제 마을 국악 거리축제는 이미 2월부터 4월까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에서 민요강습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했다. 16일부터 개최되는 축제기간에는 길놀이, 난장마당, 국악열전, 한낮의 정자마루 콘서트, 소리열전과 같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7월에는 판소리 꿈나무 캠프도 운영, 안숙선 명창과 그 제자들이 4박5일 동안 미래의 판소리 꿈나무들과 함께 1대 1 교육, 주변 판소리 유적지 답사 등 예술교육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에서는 국립국악원 원장이며 가야금 산조 김해숙 명인을 비롯해 대표적 동편제 판소리 가객 전인삼 전남대 교수, 젊은 층에 우리 음악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남상일-박애리 명창, 거문고 연주 유영주 명인, 창작연희꾼 김원민 등 국악계를 대표하는 명인 명창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소리꾼 김봉영, 권송희, 창작그룹 노니, 고래야, 국악아카펠라 토리스, 창작국악그룹 불세출, 전통연희단 꼭두쇠, 국립민속국악원 공연이 준비되어 남녀노소국악의 매력에 한껏 빠져들 수 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첼리스트 정명화와 명창 안숙선 두 예술거장의 협연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공연과 더불어 축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전시, 판매도 준비되어 있다. 부채 배포 및 그리기, 소원지만들기, 금속공예, 규방공예, 아로마 및 허브비누 만들기, 도자공예, 짚풀공예와 같은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땅따먹기, 미로, 기차길, 거미줄 놀이도 준비되어 있다. 휴제작소가 엄선한 품질 좋은 농산물도 전시 판매한다. 마을쉼터에서 운영되는 카페 '솔마당', '희망씨앗'의 훈제 소시지 등 다양한 유제품도 만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커피지도사 2급 자격증 교육

임실군이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일환으로 순창군, 남원시와 함께 커피지도사 2급(홈카페마스터 포함) 자격증반 교육을 실시한다.

13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전 신청자 25여명을 대상으로 농민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전주에서 바리스타학원을 운영하는 김은정 대표를 강사로 초빙,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교육 수료 후 창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수성을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전국적으로 커피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순창 쉴랜드, 임실 치즈테마파크, 남원 허브랜드의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교류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관광 산업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지역 소식통

임실군, 복지사각지대 전수 조사

임실군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만식)는 오는 16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만식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취약계층을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발굴된 8가구 중 3가구는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하고 5가구는 보일러 수리, 도배 · 장판 교체, 싱크대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상가주변 주정차 허용 연장

순창군이 상가 밀집지역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당초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하기로 해 군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터미널 및 교육청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유해 시간을 당초 1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터미널 사거리와 교육청 4거리는 터미널을 비롯해 마트, 병의원 및 약국 등이 밀집돼 있어 물품 구입과 처방에 따른 약 구입으로 주정차 허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불편 여론이 제기돼 왔다.

군은 그동안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 주차질서 확립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상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자활센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순창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인증서와 함께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38개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역량과 성과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자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2011년부터 매년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자활성과,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자활참여자 관리, 센터 운영 등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된 결과다.

순창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개발, 왕성한 취창업 및 탈수급, 지속적인 참여자교육 등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쾌거를 이루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환영

JCI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전남 · 광주 · 전북(형제)지구 JC 간담회

-함지웅 전남지구회장-

-정환균 광주지구회장-

-장승필 전북지구회장-

▶일시/장소: 2017년 6월 24일(토)~25일(일), 모항 해나루

▶참석대상

- 전남, 광주, 전북지구JC 회장단 및 감사 상무위원, 롬회장
- 한국JC 임원, 역대지구회장, 역대임원 등

▶주최: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장 장승필)

▶주관: 정읍청년회의소 (회장 김선홍)

세부 일정(안)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6/24 (토)	15:00~16:00	등록 및 방배정	모항 해나루	
	16:30~17:30	개회식		
	18:00~21:00	석식 및 우정의 밤		
6/25 (일)	08:00~08:30	기상		
	08:30~09:30	조식 및 유식		
	09:30~10:30	어린이 교통캠페인		
	10:30	해단식		

**형제(전남·광주·전북)지구 JC 간담회
전북 방문을 환영합니다.